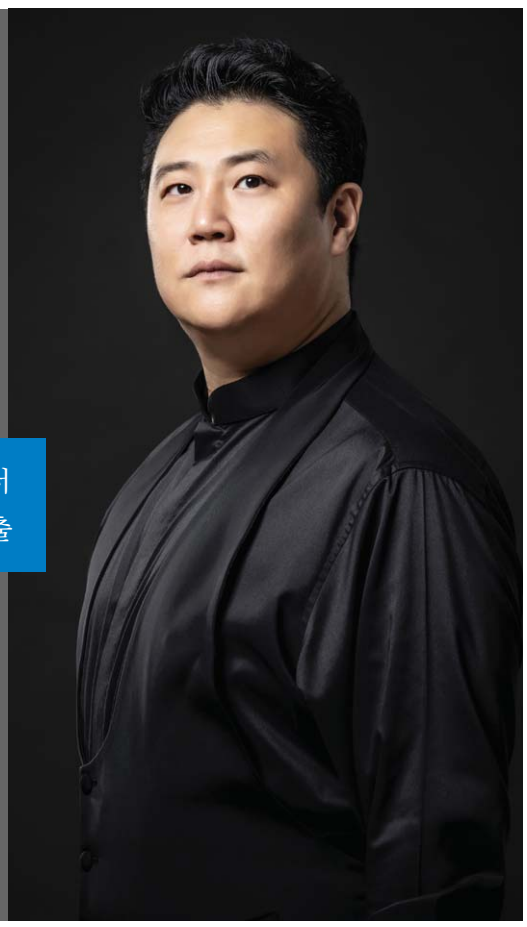
바리톤 윤기훈 사랑을 노래하다



기획초청공연 '러브 앤드 토크' 한벽문화관서
무관중 공연으로 녹화본 내달 9일 유튜브 송출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 이하 문화관)은 바리톤 윤기훈의 기획초청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러브 앤드 토크'로 사랑을 주제로 한 세계의 다양한 성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화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공연으로 전환했다. 대신 녹화·편집본을 9월 9일 오후 3시에 전주한벽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바리톤 윤기훈은 한양대 성악과 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을 수석 졸업하고, 제51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제37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제1회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 1위 및 전체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슐리반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스페인 발바오성악국제콩쿠르 1위를 하는 등 유수의 국제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일본, 스페인, 독일 등 각국의 최정상급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무대에 오르고 있다.

공연의 연주는 피아니스트 최현정이 맡는다. 그녀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을 졸업하고 미국과 독일에서 음악코치로 활동하는 재원이다.

'러브 앤드 토크'에서는 벨기에 출신의 유럽의 디바 '다나 위너(Dana Winner)'의 '이히 리베 디히(Ich liebe dich /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시작으로, 샹송 '라 비앙 로즈(La vie en rose / 장미빛인생)',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스탈돈(S. Gastaldon)의 '뮤지카 프로이비타(Musica Proibita / 금지된 노래)', 세계 3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마다 빠지지 않는 애창곡 '띠볼리오 딴또 베네(Ti voglio tanto bene / 당신을 사랑해)'와 스페인 그라나다 지역의 풍경과 그 곳에서 춤추는 아가씨의 느낌을 플라맹고 리듬으로 풀어낸 곡 '그라나다(Granada)' 등 이국적 분위기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 가곡으로 '묵향(향기로운 먹냄새)'과 '연', '시간에 기대어'도 부른다. 먼저 '묵향'은 작곡가 이원주의 곡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노래하는 곡이며, '연'은 역시 이원주의 곡으로 김동현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제1회 화천 비목 콩쿨 창작가곡 부분 1위를 수상한 곡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간에 기대어'(최 진 작사/작곡)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한 팝아트 곡이다.

전주한벽문화관 사업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겸하는 콘서트를 준비했다"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연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에 관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 이달 기획 공연 일정 연기

부안군은, 8월에 기획된 2건의 공연 사랑&동행 음악회와 변진섭 열린음악회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성수, 신효범, 박강성과 함께하는 사랑&동행 음악회는 당초 이달 28일에서 10월 20일로, 변진섭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당초 31일에서 10월 12일로 변경해 공연을 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공연을 기다려 주신 많은 군민들에게 연기 공지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최근 수도권 교회 및 광화문 집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지역 사회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대비에 대응하는 것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분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최선이라는 고민 끝에 내린 조치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예매한 티켓은 변경된 공연 일에 사용가능하며, 변경일에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는 28일까지 환불처리 되니 티켓을 소지하고 부안예술회관 관리사무실로 방문(문의처 ☎063-580-3930)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극복 위해 문화예술의 힘 필요"

박양우 문체부장관,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서 영상으로 알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으나 심리적 거리는 멀지 않아"

박양우 장관의 영상연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국에서 에든버러 국제축제(Edinburgh Festival)와 연계해 열리는 문화장관회의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문화예술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 장관은 오는 22~26일 '코로나19 상황 아래 문화의 변혁적 힘'을 주제로 열리는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Edinburgh International Culture Summit)'에서 영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소개한다고 문체부가 지난 21일 전했다.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는 영국 정부, 스코틀랜드 정부, 스코틀랜드 의회,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에든버러 국제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로 2012년부터 세계적인 문화축제인 에든버러 축제와 연계해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영상 연설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문화예술 분야 방역과 지원 대책 등을 배경으로 문화장관회의 주최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 6월에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의 올리버 다우든 장관의 요청으로 양국 문화장관 간 화상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방역 경험과 지원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공연·전시와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함께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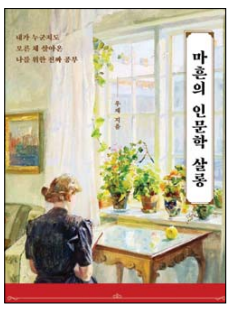
또 "우리나라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언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지 않다"며 "세계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신간도서

나를 알아간다는 기쁨

우재 '마흔의 인문학 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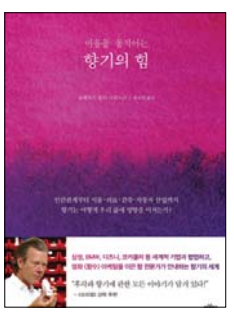
2009년부터 운영하는 블로그 '우재의 올리브 동산'에서 미술사, 세계사, 그리스 신화, 와인의 주제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통찰해 온 작가 우재가 처음으로 책을 펴냈다.

'마흔의 인문학 살롱'에는 인문학 공부를 통해 마흔 이후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기중심을 지켜내고 새롭게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게 된 저자의 경험이 담겼다.

저자는 이 책 에필로그에서 "나는 40대가 되어서 나를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했다"며 "성인이 되고 난 뒤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학창 시절 공부와는 전혀 다른 재미와 성취감을 주었다. (…) 마흔의 공부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던 내 마음의 다양한 감정과 억압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68쪽, 카시오페아, 1만6800원. /뉴시스

'후각'의 중요성

뮐러-그뤼노브 '향기의 힘'



향기에는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서점에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향이 느껴진다. 어쩐지 서가를 거닐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진다. 매우 그 향이 은은하고 고르게 퍼져 있어 고객은 자신이 지금 향을 맡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독일 향기 기술을 주도하는 향 전문가인 저자 로베르트 뮐러-그뤼노브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향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제약이 없어지면 좋겠다"며 "그것은 내가 일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향으로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비난"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후각의 중요성과 향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전한다. 송소민 옮김, 256쪽, 글담, 1만4500원. /뉴시스